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3년 12월 15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세계인 사랑 받는 감귤로” -11면 (23.12.8.)	제주감귤박람회	원예산업 신문
○	제주도연합회, 대전노은농산물도매시장 견학-7면(23.12.11.)	기술지원조정과	농업인신문
○	제주농업기술원 메밀 연구 인정받아-6면	농산물원종장	한라일보
○	2024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운영-6면	기술지원조정과	한라일보
○	농업농촌정보-11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일보
○	지역특화 원예소득 작물 육성사업 정착 지원한다-2면	-	제민일보

(원예산업신문: 2023년 12월 8일)

○ “세계인 사랑 받는 감귤로” -11면

“세계인 사랑 받는 감귤로”

2023 제주감귤박람회 ... '감귤로 빛나는 제주' 주제로 열려
단일 과일 국내 최대 박람회 ... 감귤 테마파크 및 볼거리 '풍성'



2023 제주감귤박람회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서귀포농업기술센터와 감귤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됐다.

'2023 제주감귤박람회'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서귀포농업기술센터와 감귤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제주감귤박람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가 주관으로 열렸으며 국내 단일 과일 품목 박람회 중 최대 규모의 행사로, 올해는 '감귤로 빛나는 제주, 다함께 미래로'를 주제로 개최됐다.

행사장에서선 감귤에 관한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감귤 멀티플렉스관 ▲전통·자동화 농기계를 비롯해 감귤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8개의 전시관 ▲200여 개의 전시, 체험 ▲홍보, 판매부스가 운영됐다.

인기 프로그램인 감귤따기 체험을 포함해 감귤집집 아트, 감귤 미니블록 만들기, 감귤 네일아트 등 총 8종의 체험이 운영되며 인생 '네 컷' 포토부스와 감귤 소품 포토존도 실시 운영됐다.

아울러 버스킹과 비눗방울공연, 마술 공연 등과 감귤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감귤경매, 조선시대 황금제 재현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마련됐다. 또한 농업인 한마당 축제, 농업 조합원 감귤따기 대회와 더불어 어린이 사생대회 및 골빛가요제 등도 기대 속에 진행됐다.

매년 좋은 계약 성과를 보이고 있는 바이어상담회 및 감귤이열대과수학회 심포지엄, 전국 과실 중도매인 컨퍼런스, 최연구 교수의 '문화경제 트렌드와 제주감귤' 특강, 제주감귤병인과 농업기술명인의 강연 등 학술행사도 함께 열렸다.

특히, 올해 박람회 연장은 기존의 운주리 외에 재래감귤을 활용한 캐릭터들을 개발해 박람회장 곳곳에 이를 활용한 포

토존과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어린이를 위한 감귤키즈 놀이터도 처음으로 선보여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주 감귤농가와 소상공인 동반 성장 상생 프로젝트인 '감귤세일페스타' 캠페인이 함께 열려 감귤판매를 독려하는 한편 영수증 이벤트 응모 및 추첨을 통해 400여 명에게 해외항공권 2매, 1년 무료감귤시식권 등 1,0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했다. 농업 제주본부와 제주감귤연합회, 제주관광협회,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및 제주항공이 함께 했다.

고병기 박람회 조직위원장은 "이번 박람회는 제주감귤의 우수성, 감귤산업의 전후방 확장성, 청년농업인 참여 확대, 지속가능한 미래 감귤산업의 가치 제고에 중점을 뒀다"며 "테마파크처럼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도 ESG의 가치를 최대한 반영해 지속가능한 박람회를 준비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는 "국민이 사랑하는 감귤에서 세계가 사랑하는 감귤, 대한민국 국민 사랑을 넘어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제주 감귤의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2.8. 원예산업신문 11

(농업인신문: 2023년 12월 11일)

○ 제주도연합회, 대전노은농산물도매시장 견학-7면

제주도연합회, 대전노은농산물도매시장 견학



한국농촌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양산해)는 도연합회 임원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6일~8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대전광역시, 청주시 등 선진지 견학에 나섰다.

제주도연합회 임원 대부분이 육지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출하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대전 노은농산물도매시장 방문은 이번 선진지 견학의 핵심이 됐다.

도임원들은 노은도매시장 전반에 걸쳐 견학을 실시한데 이어 대전중앙청과(대표 송미나) 관계자들과 '제값 받는 농산물'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날 대전중앙청과 김용보 전무는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맞춤형 출하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당도와 선별이 중요해 진다"면서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인지도를 높이는 데 부단히 노력해

야 하고 출하하는 도매시장을 자주 방문하는 것도 제값받는 비결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제주도연합회는 대전시연합회 서일환 회장, 중앙연합회 노만호 정책부회장 등이 동행한 가운데 노은농산물시장 관리사업소 방문, 감귤 출하시 농업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하역비를 도매법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노만호 부회장은 "대전중앙청과와 하역반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하역비를 도매법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사업소가 앞장서야 한다"면서 "당장 감귤 농가들이 부담하는 하역비가 보살 것 없어 보여지겠지만 누적된 금액으로 따져보면 무시할 수 없는 만큼 하역비 논란이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대전시가 나서 달라"고 말했다.

12.11. [대전농업인신문 7]

(한라일보: 2023년 12월 15일)

○ 제주농업기술원 메밀 연구 인정받아-6면

제주농업기술원 '메밀' 연구 인정받아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 우수기관 선정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 사업' 연구성과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작목 69개 중 지난 10월 우수사례를 추천받아 11월 서류심사를 거쳐 3개 작목을 선정했다.

농업기술원은 지역특화작목 '메

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며 전국 최초 국내 육성 메밀 우량종자 공급 체계 구축, 제주 메밀 소비 확대를 위한 가공상품 개발, 제주지역 메밀 안정생산 기술개발, 유관기관과의 협업 성과가 인정돼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업기술원은 지난 2018년 제주 지역에 적합한 국내육성 '양절'메밀을 선발했으며 매년 우량종자 생산 채종단지를 운영하며 우량 보급종을 생산해 도내 농

가에 공급하고 있다.

'양절'메밀은 국립식량과학원 육성한 장려품종으로 봄·가을 재배가 가능하다. 기존 품종대비 수량이 15% 많고, 가공적성이 우수하다.

이를 통해 2020년 0.8%에 불과했던 국산 메밀 품종 점유율은 2023년 23%로 크게 증가했으며, 재배농가의 생산성은 28% 향상됐다.

더불어 국립식량과학원과의 일반메밀 2품종 공동육성(출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의 메밀 건조제 잔류성 시험, 제주메밀협의회(생산자단체)와의 채종단지 운영 및 가공상품 개발 등 12.15. 통해 성과를 도출했다. 한라일보 6

(한라일보: 2023년 12월 15일)

○ 2024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운영-6면

2024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내년 1월 한 달 동안 각 마을 리사무소 및 지역농협 단위로 '2024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969년부터 매년 1~2월쯤 실시하고 있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농업인의 새해 영농계획 수립

을 돕고 새롭게 연구 개발된 신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교육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과 장소는 농업기술센터(제주 760-7722, 서귀포 760-7824, 동부 760-7623, 서부 760-7924)로 문의하면 12.15. 안내받을 수 있다. 한라일보 6

(제주일보: 2023년 12월 15일)

○ 농업농촌정보-11면

■ 농업농촌정보

주요 농작물 관리 요령

▲마늘 △흑색썩음균핵병, 뿌리응애 발생 시 발병주 제거하고 적용약제 방제 △월동준비=가물지 않을 정도로만 수분상태 유지, 웃거름 시비 △웃거름 2차 시비(12월 상순)=10a당 요소 12kg, 황산가리 10kg

▲브로콜리=애월읍 일부지역 검은무늬병 주의 △밀식되거나 생육이 저조한 일부 포장에서 발생 △생육촉진 영양제 및 비닐씨 이어질 경우 적용약제 살포 △수확중인 포장은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에 유의

▲만감류 출하전 품질검사제=2024년 1월 15일(월)까지 △신청 대상=2024년 1월 15일(월) 이전 한라봉, 천혜향 수확·출하 희망 농가 △신청 장소=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한라봉, 천혜향 상품 기준=당도 11.5브릭스, 산함량 1.1% 이하

▲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760-7531~3).

12.15.
제주일보 11

(제민일보: 2023년 12월 15일)

○ 지역특화 원예소득 작물 육성사업 정착 지원한다-2면

지역특화 원예소득 작물 육성사업 정착 지원한다

지역특화 원예소득 작물이 과잉
월동채소 대체 작물로 정착하기 위
한 ‘지역특화 원예소득 작물 육성사
업’이 안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2022년부터 서귀포시에서 시작
한 ‘지역특화 원예소득 작물 육성사
업’은 월동채소의 수급 안정 방안으
로 주산지별 특화 작물을 육성하는
생산자 조직 및 지역 농협과 계약
재배하는 농가에 재배 장려금을 지
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성산지역에 유채유용
유채(80ha)·가을비트(20ha), 대
정·안덕지역에 호라산 밀(150ha)
을 재배한 농가에 재배 장려금으로
총 10억원을 지원했다.

또, 3가지 농작물은 농가와 계약
이 완료된 수매·가공업체에서 전량
수매하며, 유채인 경우 제주산 유채
유 브랜드로 소비자에게 판매될 계
획이다.

호라산 밀은 보리, 일반 밀에 비
해 높은 약 56% 높은 수매가격으로
재배농가의 소득향상이 기대된다.

12.15. 김법수 기자
제민일보 2